
콜롬비아: 정치 쓰나미

에두아르도 피사로 레온고메스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교수

원제와 출처: Eduardo Pizarro Leongómez, "Colombia: un tsunami político",
Nueva Sociedad, No. 276, julio-agosto de 2018, pp. 13-23.

핵심어: 선거, 평화 협상, 이반 두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2018년 6월 17일의 콜롬비아 대선 2차 투표에서는 모든 득표권 정당을 하나로 묶은 이반 두케(Iván Duque) 후보와 비판적 계층 대다수를 결집시킨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가 맞붙었다. 두 사람의 입후보 뒤에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대단히 상이한 두 비전이 수많은 중간적 색채의 입장들과 함께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콜롬비아가 장차 정치적·사회적 양극화라는 엄혹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양쪽 모두 덜 양극화된 입장, 중간적인 이념 스펙트럼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¹⁾

콜롬비아의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최초의 위협 징후는 2016년 10월 2일에 나타났다. 아바나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게릴라와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된 '분쟁 종식과 안정적·지속적 평화 구축을 위한 최종 협정'(Acuerdo final para la terminación del conflicto y la construcción de una paz estable y duradera)을 비준하기 위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정부가 소집한 국민투표일이었다. 찬성 6,377,482표(49.8%)에 반대 6,431,376표(50.2%), 즉 불과 50,000표 차이의 비준 반대파 승리는 이 평화 협정을 둘러싸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양극화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거행된 선거에서, 나라는 좌파와 우파 두 후보를 중심으로 두 동강나는 초유의 결과가 빚어졌다. 그리하여 적어도 콜롬비아에서는 냉전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매장된 것으로 여겨지던 이념 범주들이 거세게 되살아나서 양 극단의 정치적 정체성의 표식이 되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콜롬비아 정치 시스템의 특징이었던 대규모 기권 현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금년 투표율은 1974년 이래 가장 높았다. 1차 투표에는 유권자 54.2%가 참여했고, 2차 투표 투표율은 단지 0.3%가 하락한 53.9%였다.

심층적인 변화

이 선거 결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뚜렷한 분수령이다. 정당 시스템은 대선 1차 투표에서 이미 지각변동을 겪었고, 2차 투표에서는 더했다. 한편으로는, FARC에서 새로 탄생한 정치 결사체 '공동체의 대안혁명을 위한 세력'(Fuerza

1) Daniel Mera, *Pospolarización. El reto de un centro democrático, liberal y reformista*, Gente Nueva, Bogotá, 2018.

Alternativa Revolucionaria del Común)’- 여전히 레닌식의 민주 집중제(centralismo democrático) 구조를 지니고 있다- 외에는,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운동도 자체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론조사, 서명 운동, 대중 참여 후보선출 방식, 심지어 비당원들에게까지 의존해야 했다.

또 한편으로는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세기 중반에 생겨 1991년 개헌 전까지 지배적 위치를 점하던 콜롬비아의 역사적인 두 정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이 역경을 겪었다. 몇몇 정당은 심지어 자체 후보도 내지 못했다. 또 다른 몇몇 정당은 대선 1차 투표에서 자당 후보가 1974년 국민전선(Frente Nacional)²⁾ 종식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유례없는 패배를 당했다. 즉, 파라과이와

[표-1]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후보	정당/운동	득표	득표율(%)
이반 두케	콜롬비아를 위한 대(大)동맹 (Gran Alianza por Colombia)	7,616,857	39.6
구스타보 페트로	인도적 콜롬비아 (Colombia Humana)	4,855,069	25.3
세르히오 파하르도 (Sergio Fajardo)	시민의 책무 (Compromiso Ciudadano)	4,602,916	23.9
헤르만 바르가스 (Germán Vargas)	더 나은 바르가스 예라스 (Mejor Vargas Lleras)	1,412,392	7.3
움베르토 데 라 카예 (Humberto de la Calle)	자유당 (Partido Liberal)	396,151	2.1
백지 투표	-	338,581	1.8
총 유효표	-	19,221,966	100

출처: Registraduría Nacional del Estado Civil³⁾

2) 1958년에서 1974년 사이의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협약 혹은 합의.

3) 콜롬비아 국립주민등록청은 국립선거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Electoral)의 감독하에 선거 사무도 관장한다. - 옮김이

온두라스, 그리고 크게 보아서는 우루과이와 함께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전형적인 양당 체제를 20세기 상당 시기까지 유지한 콜롬비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전통 정당의 깊은 위기는 새로운 정당 시스템뿐만 아니라, 좌파/우파의 구도하에 유권자들의 재결집이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현상을 낳았다. 한편으로는 모든 전통 정당이 두케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게릴라 단체 4.19운동(M-19, Movimiento 19 de Abril)의 전 조직원 페트로가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파가 차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간을 독점했다. 2차 투표에서는 특히 그랬다. FARC의 초라한 선거 결과와 대부분의 좌파 정당 혹은 운동의 대단히 미약한 존재감으로 인해, 전 보고타 시장 페트로는 진보 진영의 확고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어떤 이들은 페트로의 카우디요적이고⁴⁾ 메시아적 기질 때문에, 그의 리더십은 잘 조직된 전통적인 좌파 프로그램보다 좌파 포퓰리즘 기획으로 선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확실히 그러리라는 법도 없다.

FARC: 다른 이름, 동일 약어

최근 선거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무기에서 정치로” 이행 중인 FARC 게릴라의 좌절이었다. 사회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장미 한 송이를 홍보물에 집어넣고 조직 이름을 ‘공동체의 대안혁명 세력’(약자로는 똑같이 FARC다)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실제로 2018년 3월에 거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FARC는 상원의원 투표에서 52,532표, 즉 고작 0.34%의 표를 얻었

4) 카우디요(caudillo), 특정 집단을 이끄는 유력자. - 옮긴이

을 뿐이다. 이 결과는, 상원에 진출하기 위한 최소 문턱인 450,000표의 12%에 불과한 것이라 더 참혹하다. 만일 평화협정에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상원 5석과 하원 5석을 미리 보장받지 못했으면, 이 신생 정당은 정치 지형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다. 여론도 옛 게릴라 조직원 자신들도 그토록 빈약한 결과에 놀랐다. FARC가 과테말라의 과테말라민족혁명연합(URNG,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사례처럼, 별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는 일개 증언 정당(partido testimonial)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시몬볼리바르게릴라연합(Coordinadora Guerrillera Simón Bolívar)의 6개 조직 중 4개가—M-19, 민중해방군(EPL, Ejército Popular de la Liberación), 킨틴라매무장운동(MAQL, Movimiento Armado Quintín Lame), 노동자혁명당(PRT, 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활동을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이 큰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쓸데없이 고수한 FARC에 대한 철퇴였다. FARC의 지도자들도, 또 그들의 정통 프로그램 4월 테제(레닌이 100년 전인 1917년 취리히 망명에서 돌아와 페테르부르크에서 낭독한 4월 테제를 기리기 위해 동명의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이다)도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FARC의 4월 테제는 청년, 도시민, 교육받은 이가 다수인 유권자들과 접점이 없었다. 이들은 FARC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행동을 전개한 시골 지역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거 재앙 이후, FARC은 자당 대통령 후보이자 이 신생 조직의 지도자인 로드리고 론도뇨(Rodrigo Rondoño, 별명은 티모첸코⁵⁾)의 건강 상태를 빌미로 그의 입후보를 철회함으로써 또다시 부정적인 선거 결과가 빚어지는

5) 콜롬비아의 광범위한 계층에 나쁜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약자인 'FARC'이라는 명칭을 고수한 것 이외에도, FARC의 최고 지도자의 '티모첸코(또는 티모셴코)(Timochenko)라는 가명도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였다. 론도뇨는 오래전에 그 가명을 쓰기 시작했는데, '대조국전쟁'(Gran Guerra Patria)에서 고위 장성으로 히틀러의 군대에 맞서 싸운 소비에트 전쟁영웅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것을 회피했다. 어쨌든, 2018년 선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가 치른 선거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이었다는 점은 강조해야겠다. 콜롬비아의 핵심 게릴라 집단의 탈동원 덕분이기도 하지만, 아바나 협상 테이블에서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이 조용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중도-중도: 미확인 정치 물체?

두려움 조장은 가장 강력한 양대 선거 진영, 즉 두케와 페트로 진영의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페트로가 “내가 더 위상이 커지면, 두케도 더 위상이 커진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 두케는 논란의 대상인 전직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의 맹장(盲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페트로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카스트로-차베스주의’의 맹목적인 추종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세계 정치 무대에 난입한 가짜뉴스가 콜롬비아에도 침투했다. 두 후보의 의도를 희화화한 캐리커처나 왜곡은 일상의 빵이었다. 이 불건전한 분위기에 직면하여 중도-중도파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수학 교수이자 전 메테인 시장 세르히오 파하르도가 주도하여 정치적 양극화와 그 위협에 반대하는 담론에 입각한 흐름이었다. FARC과의 아바나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한 인물인 전 부통령 움베르토 데 라 카예도 이 흐름에 일조했다. 사실 파하르도는 놀라운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여 1차 투표에서 페트로를 밀어낼 뻔했다. 그러나 그의 담론은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

많은 분석가에게 파하르도와 데 라 카예가 얻은 결과는, 결국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탈양극화적인 중도-중도파의 형성 가능성을 어슴푸레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콜롬비아 중산층의 중요

한 성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적 가치들'의 고양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중도-중도는 30%에서 36.2%로 늘었다(조사 결과는 10단계로 제시된다. 1단계는 극좌이고, 10단계는 극우이다).⁶⁾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많은 분석가가 이 새로운 현실들이 양극화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2차 투표

대선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의 3주 동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두케와 페트로 모두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장들을 버리고 중도 후보로 비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놀라운 담론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는 두 후보 모두 각자 진영의 유권자들을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그들의 표심이 마지막 순간에 바뀔 징후가 없었다. 따라서 중도에 위치한 유권자들(즉 파하르도와 데 라 카예를 지지한 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 상황과 수천 명 이상의 극빈자 이주자들이 콜롬비아에 야기한 가공할 충격이 두 후보의 담론을 온건하게 만들었다. 두케는 콜롬비아가 이웃 국가와 유사한 길을 걷지 않으려면, 나라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진지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폈다. 페트로도 베네수엘라 모델의 맹목적 추종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온건한 담론을 이용했다. 이 인도적콜롬비아당 후보는 심지어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능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6) Juan Fernando Londoño y Gloria Cecilia Gallego, *Ubicación ideológica de los colombianos*, CEDAE, Bogotá, 2014.

이 중도적 이념 스펙트럼으로의 이동에서 수혜자는 페트로였다. 그는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차 투표에서 800만 표 이상을 득표했다. 즉, 1차 투표보다 65.6% 늘어난 수치다. 반면 두케는 36.5% 더 득표하는 데 그쳤다.

[표-2]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결과(2018년 6월 17일)

후보	정당/운동	득표	득표율(%)
이반 두케	콜롬비아를 위한 대(大)동맹	10,398,689	54.0
구스타보 페트로	인도적 콜롬비아	8,040,449	41.8
백지 투표	-	807,924	4.2
총 유효표	-	19,247,062	100

출처: Registraduría Nacional del Estado Civil

원자화된 국회

앞으로 정치적 절제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새로운 국회 구성을 들 수 있다. 두케와 페트로 모두 상원이든 하원이든 견고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신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적중도는 19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했고, 페τρό를 지지한 운동인 품격리스트는 겨우 3명을 당선시켰다. 여기에 대선에서 2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1석을 할애하는 새로운 야당법[Estatuto de Oposición]에 따라, 패배한 페트로에게 돌아가는 1석이 추가됐다. 하원 구성도 매우 유사하다.

현재 관측하기로는, 두케는 자신을 지지한 정당들(민주적 중도, 급진적 변화, 보수당, 자유당, U당, 그밖에 두 복음주의 결사체 완전쇄신독립운동과 바른 콜롬비아)의 상원의원 82명을 규합하고, 페트로에는 나머지 26명(녹색연합, 민주국,

[표-3] 상원: 2018년 3월 의석 분포

정당/운동	의석
민주적 중도(Centro Democrático)	19
급진적 변화(Cambio Radical)	16
보수당(Partido Conservador)	13
자유당	14
U당(Partido de la U)	14
녹색연합(Alianza Verde)	10
민주극(Polo Democrático)	5
FARC	5
품격 리스트(Lista de la Decencia)	4
완전쇄신독립운동(Movimiento Independiente de Renovación Absoluta)	3
바른 콜롬비아(Colombia Justa)	3
선주민구역(Circunscripción indígena)	2
계	108

품격 리스트, FARC, 선주민구역)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확실하지 않다. 상원의원을 보유한 대다수 정치 세력의 불안정한 조직력 때문에, 신임 대통령도 야권을 주도하기를 원하는 페트로도 한층 가변적이 된 국회에서 사안별로 과반을 다룰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새로운 양당 체제가 출현하리라는 전망은 적절하지 않다. 상원은 108석이기에 때문에 단순 과반은 55석이다. 그리고 두케(상원의원 19명)와 페트로(상원의원 4명)의 자체 의석수가 단순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 다른 정당 혹은 정치운동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케: 콜롬비아의 메드베데프?

두케는 콜롬비아 역사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물론 투표자 수가 늘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기득권 정당과 운동 전체의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 라틴아메리카 나머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차하면 아주 보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정치 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기독교 운동들도 가세했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는 두케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로 간주하기도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택한 메드베데프(푸틴은 2000~2008년 연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출마할 수 없었다)는 러시아의 새로운 차르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남의 몸을 빌려 통치한 뒤 2012년 다시 최고 권력으로 복귀하는 데에 협조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에 따르면, 두케를 콜롬비아의 메드베데프로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이들은 신임 대통령이 민주적중도당 대표 우리베보다 더 중도적이고 온건할 것이고, 따라서 더 젊고 전통적 정치에 덜 물든 새로운 정치 세대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우리베주의자들 중 극우파는 두케가 후안 마누엘 산토스의 재판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산토스는 중국에는 자신의 멘토 우리베의 지원을 배제한 통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페트로: 콜롬비아의 니콜라스 마두로?

‘페트로 현상’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다. 카리스마도 별로 없고(페트로로는 후안 D. 페론도 아니고 우고 차베스도 아니다), 3월 상하원 선거에서 겨우 세 명의 상원의원과 소수의 하원의원 확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나서 진보 진영 및 좌파 전체 규합에 성공했다. 동물보호주의자, 환경주의자, LGBTI 그룹⁷⁾,

좌파 운동들, 생디칼리즘 조직들, 그리고 특히 정치 참여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던 청년들이 대거 페트로를 지지함으로써 전통적 지배 엘리트들을 크게 경악시켰다. 두말할 나위 없이 페트로로는 콜롬비아 국민 상당수의 변화 열망을 결집시킨 것이다. [표-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트로가 최근 콜롬비아 역사에서

[표-4] 콜롬비아: 좌파와 대안 후보들 중 다수 득표자

연도	후보	정당 혹은 운동	득표수	득표율
1974	에르난도 에체베리 (Hernando Echeverry)	전국야권연합 (Unión Nacional de Oposición)	137,054	2.7
1978	훌리오 세사르 페르니아 (Julio César Pernía)	전국야권연합	97,234	1.9
1982	헤라르도 몰리나(Gerardo Molina)	민주전선(Frente Democrático)	82,858	1.2
1986	하이메 파르도(Jaime Pardo)	애국연합(Unión Patriótica)	328,752	4.5
1990	안토니오 나바로 (Antonio Navarro)	민주동맹 M-19 (Alianza Democrática M-19)	754,740	12.5
1994	안토니오 나바로	민주동맹 M-19	219,241	3.8
1998	-	-	-	-
2002	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손 (Luis Eduardo Garzón)	독립민주극 (Polo Democrático Independiente)	680,245	6.2
2006	카를로스 가비리아 (Carlos Gaviria)	대안민주극 (Polo Democrático Alternativo)	2,613,157	22.0
2010	안타나스 목쿠스 (Antanas Mockus)	녹색당 (Partido Verde)	3,587,975	27.5*
2014	클라라 로페스(Clara López)	대안민주극/애국연합	1,958,518	15.2
2018	구스타보 페트로	인도적 콜롬비아	8,040,449	41.8*

*대선 2차 투표 결과

7)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중성(intersex) 모임. - 옮긴이

좌파 혹은 대안적 입장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페트로는 최근의 정치 개혁 덕을 보았다. 2차 투표에서 패한 대선 후보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자동으로 각각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의회 야권 다수와 지도자가 야권 영수 역할을 하는 영국 의회 모델을⁹⁾ 모방한 이 개혁이 과연 다당제하의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미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독립민주극의 권위 있는 상원의원 호르헤 엔리케 로벨도(Jorge Enrique Robeldo) 같은 좌파의 다른 지도자들은 페트로를 야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치 개혁 덕분에 늘 불안하기만 했던 콜롬비아 민주주의에서 야권이 특별한 보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페트로를 다수와 지도자로 야권을 온건하게 이끌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으로 이끌 것인가? 일부 분석가들은 중도좌파 위치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의 베네수엘라 사태(더 최근 사례로는 니카라과 사태)를 거울삼고, 그의 많은 제후자가 중도좌파 입장이라서 전투적인 담론을 공유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건설적인 국가적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갈등 후 국면’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분석가들은 페트로가 한편으로는 의회 내 논쟁을 통해(페트로를 여러 차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역임해서 의정 활동에 익숙하다), 또 한편으로는

8) 금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보장한 야당존립보장법(Ley Estatutaria de Estatuto de Garantías para los Partidos de Oposición)이 열한 차례의 법안 제정 실패 끝에 1991년 헌법 제112조의 공백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 궁극적인 동인은 FARC과의 아바나 평화 협정에서 합의된 야권의 권리였다. / 1991년 헌법 112조는 야당 존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법으로 제정, 명시한다고 되어 있었다. - 율진이

9) 야당 당수가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영국식 의회 정치를 가리킴. - 율진이

다른 공간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병행하면서 갈등을 택하리라고 주장한다. 이 비방자들에 따르면 페트로의 ‘메시아적’이고 ‘권위적’인 기질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라틴아메리카인들의 포퓰리즘적이고 섭리론적인 카우디요 숭배를 조장하게 만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일이다.

어찌 됐든 정치적 분할이 사회적 분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이 반드시 두케 편이고, ‘하류층’ 사람들이 페트로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념적 분할이, 그리고 상당 부분은 지역적 분할이 더 크게 작용한다. 페트로는 마약 불법 재배와 폭력 지속에 흑독한 타격을 받은 태평양 연안 4개 주(나리뇨, 카우카, 바예 델 카우카, 초코)에서, 또 청년 표 덕분에 보고타를 비롯한 몇몇 주요 도시에서 승리했다. 반면 두케는 중부 및 동부 지방에서 승리했고,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두케의 대선 승리를 결정지은 주요인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상황이었다. 특히 이주의 충격이 컸다. 어림잡아 1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은 하찮은 임금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막대한 규모의 ‘산업 예비군’이다. 부도덕한 일부 고용주는 별 의식 없이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며 이 험값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정규직을 줄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현상은 무엇보다도, 이주로 타격을 입은 계층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닿은 주들에서 두케가 압승을 거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불안정한 미래

내가 보기에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목격 중이다. 페트로는 정상적인 야당을 표방했고, 두케는

자신의 통치 능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완화시키고자 이미 올리브 가지를 제시했다. 물론 페트로가 어느 정도로 강한 야권을 추진할지 예측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선부른 일이다. 더구나 그가 야권 지도자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지, 아니면 콜롬비아 좌파 전통이 그렇듯 그의 지지자들이 분열하게 되고 말지 예측하는 일은 더 그렇다. 어찌 되었든, 대선에서 페트로의 성공은 콜롬비아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변화의 열망을 보여주는 확고한 징후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두께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도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나라 절반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일지도 모를 일이다.

내년에는 시장, 주지사, 주 의회 의원, 시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거행된다. 이 선거는, 페트로가 자기 입지를 구축하여 4년 내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선거는 두께가 콜롬비아 사회에 동지를 둔 변화의 열망에 응답한 것인지, 혹은 대중의 절규에 응답하는 데 나타냈던 베네수엘라 엘리트 집단이 겪은 철퇴를 맛보게 될 것인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게릴라가 좌파 공간을 훨씬 더 크게 독점해서, 좌파 계열 정당들이 제도권 정치의 낮은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우수 인력을 게릴라가 흡수했고, 이들의 무장투쟁은 사회운동과 생디칼리즘 운동의 분출 및 확장 여지를 별로 남기지 않았다. 다니엘 페코는 이를 두고 “사회적·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한 무장투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¹⁰⁾ 두말할 나위 없이 FARC과의 무장충돌 종식,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10) Daniel Pécaut, “Una lucha armada al servicio del statu quo social y político” en Comisión Histórica del Conflicto y sus Víctimas, *Contribución al entendimiento del conflicto armado en Colombia*, Bogotá, 2015.

ELN과의 무장충돌 종식은 대안 계층들이 현실 권력으로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새 통치자가 FARC과의 평화 협정 및 아바나에서 진행 중인 ELN과의 대화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다만 FARC과 도출한 합의와 ELN과의 협상 틀을 재검토하겠다는 두케의 강경한 유세 담론은 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내 무장충돌이 다시 격화되면 민주적중도당 후보 두케를 지지한 계층들까지 포함해 나라 전체에 진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FARC과의 평화는 이미 불가역적이고, 소수파인 ELN과의 평화는 예측 불가능하다. 전임 대통령 산토스조차 대단히 급진적인 이 소수 그룹과의 평화에 진지한 전진을 이룩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우석균 옮김